

‘직장인 노후준비’ 교육이 필요해

55% “준비하고 있다”...88% 예금 등 자금 마련 올인

교육경험률 25% 뿐...취미·직업교육 등 범위 확대 필요

잡코리아 설문

50대를 바라보는 직장인 백씨는 요즘 노후준비로 고민이다. 20여년 동안 준비한 국민연금과 중간정산 후 남은 약간의 퇴직연금이 노후준비의 전부다. 이에 백씨는 은퇴하기 전까지 최대한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백씨처럼 노후를 대비하는 직장인은 많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461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생각

을 묻은 결과, 직장인 55.3%가 현재 노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40대 이상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59%), 20대(45.4%)가 뒤를 이었다.

가장 인기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은 저축(45.5%)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예금, 적금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개인연금(30.2%), 국민연금(12.5%), 자격증 마련 및 기술습득(7.5%)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상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제적 여유(57.3%)를 1위로 꼽았으며, 건강(34.1%)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가족(5.6%), 취미생활(2.2%)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고려하는 시기는 55세 이상 60세 미만(33.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 70세 미만(25.8%), 50세 이상 55세 미만(20.6%) 순으로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시기라고 답했다. 45세 이상 50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직장인도 13.2%나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노후에 필요한 1인 월 평균 생활비는 193만원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냐고 묻자 응답자들의 40% 이상이 미흡하다고 답해 노후준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발표된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40~59세 직장인 529명(남자 396명, 여자 13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 교

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4.9%에 달했다. 중년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후준비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기업 근무자의 노후준비 교육 경험률은 34.4%로 중소기업(20.1%)과 중견기업(23.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사무직은 28.6%로 비사무직(20.4%)보다 8%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직장인과 은퇴 예정자를 위한 철저한 노후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명숙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자리희망센터 소장은 “노후준비 교육은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종사자에게 확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는 이들에게 전문강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82.56 (-9.39)
- ↑ 금리 (국고채 3년) 1.71% (+0.03)
- ↓ 코스닥 665.89 (-6.74)
- ↑ 환율 (USD) 1144.00원 (+7.10)

‘광주형 일자리’ 국정과제 채택 촉구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28일 자료를 내고 “새 정부는 약속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현실화 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경제계가 적극 지지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와 염원에 화답해 달라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경총은 “현재 사회전반에서 겪고 있는 양극화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고용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 노사민정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이 같은 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 20일 사회통합형,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 협약’ 체결에 동참한 바 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야 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인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 체결 확산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구체적인 적용 분야도 제시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실현, 적정근로 시간 실현, 원·하청관계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빛그린 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을 연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효성, 미국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행사 효성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헨츠필 병참본부에서 개최한 참전용사와 가족을 위한 감사행사에서 참전용사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효성 제공>

삼성·효성·기아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동반성장위, 대기업 25개사 선정...풀무원 등 10곳은 ‘미흡’

풀무원식품, 볼보그룹코리아, 한솔테크닉스 등 10개 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효성 등 대기업 25개사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15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제갈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하여 산정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표된다. 올해부터는 지수 평가 취지 및 신뢰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 미흡으로 처리했다. 2011년 도입돼 지금까지 총 6차례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공표대상 155개 대기업 중 ‘최우수’ 등급은 25개사, ‘우수’는 50개사, ‘양호’ 58개사, ‘보통’ 12개사, ‘미흡’ 10개사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이하 가나다순)은 볼보그룹코리아, 이레오모터브시스템, 코스트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화신, S&T모터브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협약이행평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동반성장위는 설명했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삼성전기,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코웨이,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모터에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효성, CJ제일제당,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25개사다.

우수 등급은 삼성중공업, 이마트, 포스코, 현대건설, SPC삼립 등 50개사였고 양호 등급은 농심, 대한항공, 롯데백화점, 매일유업, CJ푸드빌 등 58개사가 받았다. 보통등급은 서울반도체, 오비맥주, 이랜드리테일 등 12개사였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9500가구 분양

올해 하반기 광주는 5700여 가구, 전남은 3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 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은 23만여 가구로 예상되면서 광주는 전체의 2.5%인 5784가구, 전남은 전체의 1.7%인 3832가구가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단기차익 목적을 고려한 갭투자는 위험하다”며 “자본력을 갖추고 임대소득 목적의 수익형부동산 구입이나, 자기자본 투자만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3.3㎡(1평)당 분양가는 광주 949만원, 전남 738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1069만원)보다 낮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송전용량 산출·화재감시 설비 국산화

광기술원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이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오던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산화 하는데 성공했다.

한국광기술원은 지중(땅속 매립) 전력선 송전용량 산출과 화재 감시를 위한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DTS·Distributed Temperature Sensor)’을 한전KDN(주)와 공동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DTS 기술 개발에는 한국광기술원 스마트광전연구센터 김명진 박사팀이 참여했다.

이번에 국산화된 DTS 기술은 송전설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온도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화재발생 전에 신속한 예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화재발생 후 알람이 작동하는 기존 전기식 센서와는 달리 전력선을 따라 넓은 지역에 설치된 광섬유를 이용해 최장 30km에 이르는 장거리 온도 분

포를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광기술원 연구팀은 한전KDN과 공동으로 개발한 DTS시스템의 사업화를 위해 서울·인천·부산 지역 지중 전력 구에 시범 설치하고 성능 검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섬유 분포형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설비 고도화, 노후화, 복잡도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전력계통 뿐만 아니라 가스시설, 정유·화학 플랜트시설, 원전시설 등 국가 기간 산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김영선 한국광기술원장은 “그동안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던 DTS장비의 국산화로 지중 송전케이블 뿐만 아니라, 가공지선 등 다양한 전력설비에 개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번 기술 개발은 한층 더 효율적인 전력용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점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천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 743㎡ | 전문병의원 및 피부 레스토링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 7천원부터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